기업의 디지털 전환(DT) 추진 현황 및 실태조사

기업의 디지털 전환(DT) 추진 현황 및 실태 조사

산기협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기업의 DT추진 현황과 애로요인 파악을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. 기업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 570개사가 응답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디지털 전환(DT) 추진현황

- (추진단계) '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'은 전체의 33.6%로 나타났으며, '추진 검토 단계에 있는 기업'은 37.2%, '미추진 기업'은 29.2%로 조사되었다.
  - 기업규모별로는 대 · 중견기업의 62%, 중소기업의 31.7%가 디지털 전환 추진 중
  - 디지털 전환 중점 추진 분야는 '연구개발(37.4%)', '제조생산(34.8%)', '마케팅/판매(15.5%)'의 순
  -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목표는 '업무효율/생산성 향상(60.0%)', '신규사업 발굴 및 확대(19.7%)', '비용/원가 절감(6.3%)'의 순

- (추진성과) 디지털 전환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성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, '디지털 전환 성과에 만족한다'는 기업이 43.9%로, '불만족한다'고 답변을 한 기업(12.9%)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았다.
  - 만족하는 이유로는 '신제품/서비스 개발에 도움(38.7%)', '제품/서비스 품질제고에 기여(25.8%)', '비용절감(18.1%) 순으로 드러남
  -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'관련 기술 및 시스템 구축과 인력운용 비용이 많이 드는데 비해, 아직 가시적 효과가 크지 않다', '산업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' 등 답변

- (활용기술) 디지털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활용도가 높은 기술은 '클라우드/SaaS(2.51점)', '빅데이터(2.26점)', '인공지능(2.00점)', '사물인터넷(1.92점)', 'AR/VR/메타버스(1.56점)'의 순으로 조사되었다.

- (국산비중) 기업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(장비, 시스템, S/W)의 평균 국산 비중은 36.8% 수준으로 외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  - 기술별 국산비중은 '클라우드(45.4%)', '빅데이터(42.5%)', '인공지능(37.7%)', '사물인터넷(36.9%)', '디지털트윈(29.7%)', 'AR/VR/메타버스(29.2%)', '블록체인(28.7%)' 등으로 조사

디지털 기술 공급기업 현황

- (공급 디지털기술) 디지털 기술 공급기업이 주로 개발/서비스하는 디지털 기술영역은 '빅데이터(25.2%)', '인공지능(23.0%)', '사물인터넷(13.3%)', '클라우드/SaaS(12.5%)'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.
  - 디지털 기술 공급기업의 주된 시장영역은 'IT서비스(33.0%)', '제조(29.3%)', '의료/헬스케어(9.0%)' 등

- (기술수준) 디지털 기술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자사가 보유한 디지털 기술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 '세계 최고수준'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.2%에 불과했으며, '국내최고 수준'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5.0% 수준이었다.

EU의 디지털제품여권(DPP) 대응

- (디지털제품여권 인지도) EU에 수출될 제품에 디지털 정보를 탑재하도록 하는 '디지털제품여권(DPP)'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는 기업이 44.8%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, 적극 모니터링 하는 기업은 전체의 3.0% 수준에 불과했다.

- (향후 EU수출 예상) 디지털제품 여권이 도입될 경우 'EU국가로의 수출이 어려워지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'하는 기업은 23.2%로, 아직까지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생성형AI 활용

- (생성형AI 활용) 최근 인공지능 분야의 현안인 Chat-GPT 등 생성형 AI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에 대하여 48.9%의 기업은 '적극 또는 일부 활용을 권장'하고 있으며, 5.1%의 기업은 '활용을 자제하거나 금지'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- (활용 제한) 생성형 AI활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이유는 '기업정보 유출 문제(79.2%)', '업무 외적인 활용(16.7%)' 순으로 나타났다.

정책 제안

- (정부사업 만족도) '디지털 기술/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정부사업에 참여한 기업'은 27.8%였으며, 이들 기업 중 52.5%는 '참여한 정부사업에 대해 만족'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- (애로사항) 디지털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기업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'전문인력 부족(31.2%)'과 '수요-공급기업간 연계 부족(17.0%)'으로 나타났다.

- (지원정책)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지원정책으로는 '기술/연구개발 지원(25.1%)', '국내수요발굴 및 시장창출(16.5%)', '세제 및 금융지원(12.9%)', '솔루션 및 컨설팅 지원(11.8%)' 등을 요구했다.

- (정책개선)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관련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'산업계 수요(현실)를 반영한 정책 수립(33.3%)', '대중소 상생사업 확대(29.1%)', '부처간 산재한 지원정책의 일관성 확보(13.9%)'의 순으로 조사되었다.